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변화와 기업의 입지특성*

이 현 주** · 이 승 현***

요약 : 지역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내 경제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추세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기업입지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불만조건으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 및 고차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 부족이 가장 부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주요어 : 수도권 경제구조변화, 경기도 접경지역의 산업화, 지역 낙후성, 기업입지 요인

1. 서 론

하나의 공간은 그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성격이 부여되고 이렇게 중첩된 의미와 성격이 그 공간의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 접경지역의 특성을 규정해 보면, 정치·군사적 관점에서는 국경과 인접한 공간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의 주변지역이라는 관계적 위치가 상대적 낙후성을 잉태하게 하는 공간이다. 지역

이용가치라는 측면에서 접경지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현재적 효율성이 부족하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과잉활용되어 고갈될 위기에 놓인 주자원 지역을 대신할 잠재력을 갖춘 한계자원의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¹⁾

한편,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러한 각각의 요인은 상호 차별적으로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도 접경지역의 제약성과 경제적 낙후성을 형성하고 있다. 환언하면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S1031)

** 국토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

적 낙후성은 그 지역이 가진 독특한 정치적 환경 제약에 의한 공간적 결과물이며, 이 제약성이 경제적 낙후성으로 고착된 것이다. 국경은 분리선 또는 접촉의 선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나 우리나라와 같은 폐쇄적 국경을 보유한 접경지역은 군사적 방어지역으로서의 분리의 기능이 강조되므로 군사적 토지이용이 우선시되어 지역경제 활동은 제약받게 되고 중심지역 성장의 파급효과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차단되었다.²⁾ 또한 접경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실시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중심부인 서울권이 성장의 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속한 접경지역의 인력과 자원이 중심부로 유입되는 역류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중복적인 법적 규제에 의한 접경지역의 미개발 및 정체가 이러한 역류효과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 접경지역은 국내 경제중심으로부터의 격리, 국경의 분리기능으로 인한 공간적 왜곡이 초래되고 정치·경제적 상황간의 갈등양상이 나타나는 경제적 낙후지역이며 수도권 경제중심지의 공간적 외곽의 성격을 지닌 한국의 고도경제 성장의 외곽지, 개발 배제지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은 경기도 접경지역을 새롭게 부상하는 잠재적 개발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이므로 현재 경기도 접경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역성 규명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며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지역 개발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접경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찰한다. 특히 접경지

역의 정치·경제적 요인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지역의 개발잠재력 형성요인으로 인식되는 기업의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내용은 첫째,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구조 특성을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 진행되는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양상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둘째, 경기도 접경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기업입지의 흡인요인과 배출요인을 분석하여 기업의 환경, 기업의 활동무대로서의 경기도 접경지역을 평가해 본다.

연구방법은 통계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활용된 통계자료는 경기도 통계연감, 경기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및 각 연구 시·군의 통계연보이며 경기도 접경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는 2002년 10월과 2003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심층면접과 설문지 조사가 주축을 이룬다. 설문은 2000년 사업체통계조사에 수록된 기업 8,922개를 모집단으로 하여 공장 등록정보(femis)를 통해 주소확인이 가능한 5,000개의 업체 중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연구지역 5개 시·군의 2,119개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하고 정확한 개별 기업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기업체들과의 면담, 연구소 및 지방산업단지 관리사무소와의 면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면담이 실시되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접경지역지원법에서 규정한 경기도 접경지역 7개의 시·군 중, 전체 행정구역 면적에 비해 접경지역 비중이 작은 고양시를 제외하고 동두천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으로 한정하였다.

2.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구조 변화

국가나 지역의 산업은 기술변화나 산업정책에 의해 업종의 구성이나 조직이 변화될 수 있고 산업활동은 공간상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경제구조 변화는 경제활동 공간구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박삼욱, 2000). 또 산업구조의 변화는 각각의 국지적 공간상에서 단절된 현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해 연계된 모든 공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전개된다. 그러므로 서울을 하나의 중요한 핵으로 하는 수도권 경제 공간 조직은 일부 공간의 변화 과정이 유기적으로 전체 공간상에 영향을 미쳐 수도권 경제권을 변화시키게 된다. 특히 그 변화의 파장이 서울에서부터 전개될 때는 수도권 전체의 경제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자체만에 국한된 설명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틀 안에서 고찰하고 이해할 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를 이해하는 선행연구로 수도권지역의 경제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이후에 수도권 산업분산의 영향이 경기도 접경지역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본다.

1) 수도권지역의 산업구조 및 산업공간의 변화

수도권 지역의 산업구조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최근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2차 산업 비중 감소와 3차 산업의 증가로 대별되며 서울의 탈산업화와 서울 영향권의 확대로 수도권 내부적 공간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주도의 산업구조조정 정책 방향이 사양산업(노동집약산업), 성숙산업(자본집약산

업)의 합리화와 첨단산업(지식집약산업)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산업방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각 기업별로 상이한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지역간 차별화된 생산공간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서울에는 대기업의 경영, 통제, 연구개발, 기획 등의 핵심적 기능이, 수도권 주변지역은 생산기능이 집중되어 수도권지역의 기능적 분화 및 재집중하는 공간구조 재편 현상이 나타난다. 서울의 경제패턴이 서비스 산업으로 재편됨과 보조를 같이하여, 경기도는 지금까지 서울이 담당하던 2차 산업 중심지 역할을 이전 받아 2차 산업 공간으로서의 지위를 강화시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서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가 하나의 기능지역으로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어 중심에는 업무 및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도시인 서울이 성장하고 주변지역은 제조업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적 기능 분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 수도권 경제공간적 구조

수도권의 경제공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생산기반적 경제활동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보인다. 서울과 인천은 하나의 대도시 경제지역으로 고도화된 산업 구조를 띠고 있으나 서울·인천의 배후지역인 경기지역은 하위지역별로 경제 활동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허재완, 1998). 개별 하위지역은 강력한 경제적 위상을 지닌 서울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접근성 차이에 의해 제조업의 증감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서울과의 관계성에 의해 각 지역의 산업구성이 규정되고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수도권 경제구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구조를 나타내는데 서울 인근은 공업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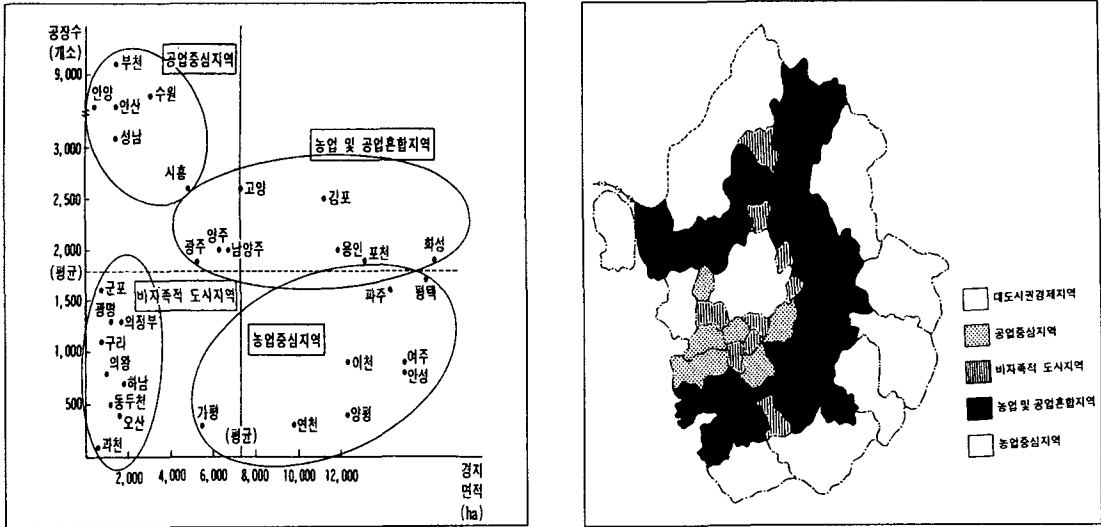


그림 1. 수도권 공간구조

출처 : 허재완 외, 1998, 188-189

울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업 집적도가 낮아져 농업과 공업의 활동이 혼재된 중간지역이, 그 너머 공업활동 희박지역에서는 농업생산위주의 경제활동이 전개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 방향이나 한강 상류계 방향보다는 경부축과 서해안 방향으로 토지 이용패턴이 고도화되어 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이 개발제한 및 군사보호정책으로 강력한 물리적 산업입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기도 접경지역은 대부분 농업 및 공업 혼합지역과 농업중심지역, 비자족적 도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이 수도권내 기능적 역할모형에서 개발의 핵을 형성하는 지역이 아니며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던 제조업 분야의 집적지역도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접경지역은 핵심적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전근대적 경제구조(농업위주 경제구조)와 근대경제 구조가 혼재하는 공간적 특성을 지닌 곳으로 나타난다(허재완,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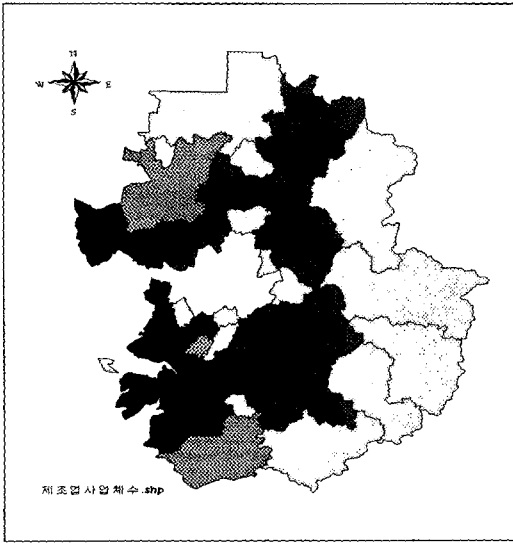
(2) 수도권 제조업 공간조직

① 수도권 제조업의 분포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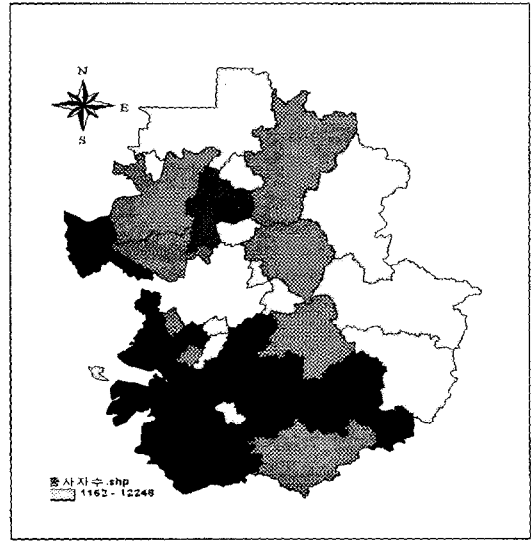
2001년 통계를 바탕으로 경기도 제조업의 분포 특징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 서부지역위주의 집중분포경향을 보여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갈수록 제조업의 수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북부보다는 남부를 중심으로 한 분포 특성을 보인다³⁾(그림 2).

한편, 경기도 제조업의 공간적 분포를 제조업 체수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면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기업체수를 기준으로 경기도 제조업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동·서축을 기준으로 제조업 집종의 격차가 나타난다. 경기도의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이 분포하고 동부 내륙으로 갈수록 밀집 정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제조업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남·북축의 뚜렷한 대조 현상을 나타낸다. 경기



경기도 제조업체 수



제조업 종사자 수

그림 2. 경기도 제조업체수와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자료 : 경기통계연보, 2002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특히 경기남서부지역에 제조업종사자수가 많은 지역이 서로 인접하여 집중 분포하는 특색이 나타난다. 특히 인천으로부터 시작되는 부천-시흥-안산-화성의 서해안 벨트와 그 지역과 연해 있는 수원-용인지역에 제조업 종사자 밀집지역이 집중 분포하여 경기도 제조업 고용창출의 핵심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② 경기도 제조업 공간조직의 시계열적 변화

그러나 상기에 설명한 공간 분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공간적 패턴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다. 그 변화의 패턴은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와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연구결과, 대체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수도권에서 제조업의 분산이 주로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의 성장이 더욱 원거리화하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분산적 집중화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부의 김포, 파주, 포천 일대와 남서부의 시흥, 화성, 평택, 안성, 광주일대가 제조업 고용이 뚜렷이 증가한 지역이 된다 (권용우, 1998).

- 제조업 사업체의 변화추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업체수(그림 3)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2000년에는 1990년 대비 59.3%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이 증가현상은 1990년대 후반 조금씩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 1990-95년 기간 중에도 41.1%의 증가추세를 보이던 것이 1995년-2000년 기간 중에는 13%만의 증가를 보인다. 이는 1990년대가 서울 지역에서의 지가 상승 및 산업공간의 부족,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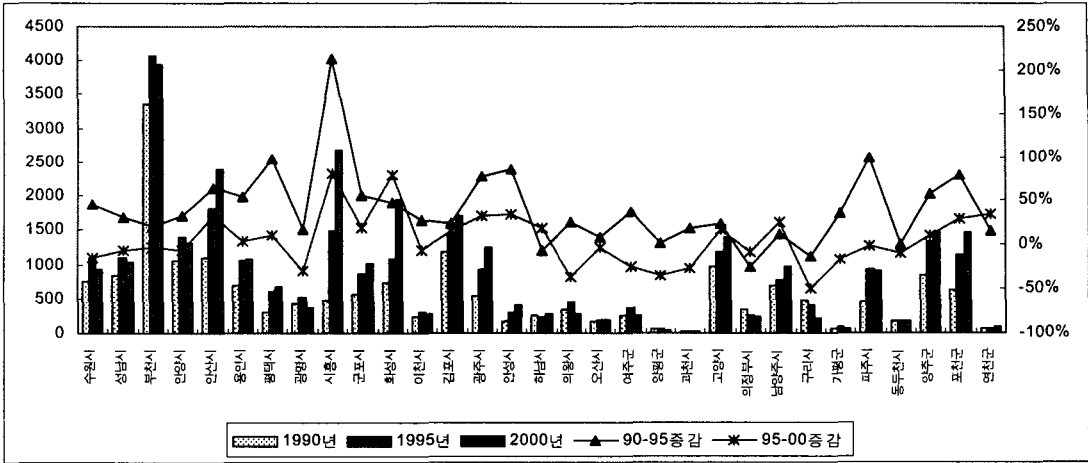


그림 3. 경기도 전산업체 사업체수의 변화추이(1990년-2000년)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2, 1997, 2002

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확충된 수도권외곽의 산업공간 등이 흡인요인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수도권 산업공간조직이 형성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1998년의 IMF 충격으로 '사업체의 창출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사업체의 소멸'로 변화의 방향성이 전이되면서 1995년 이후 경기도지역에서의 사업체 증가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체의 증가는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데 특히 경기 남부 외곽지역과 접경지역에서의 사업체 증가현상이 두드러진데 반해 서울인접한 시·군부는 예외 없이 감소추세로 돌아섰다.⁴⁾ 사업체 급성장지역은 시흥시(467%)와 안산시, 평택시, 광주시, 안성시 등의 경기남부지역으로 2000년 현재 경기도 사업체의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전체 경기도 사업체수의 절대비중에서는 여전히 2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199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1990-2000년 72.5%의 증가율). 접경지역 내에서 사업체집적공간의 성장을 주도하는 지

역은 김포시, 포천군, 양주군의 세 지역이다.

이러한 사업체 분포의 공간적 이동으로 서울인근지역은 새로운 기능으로 역할이 전이되고-주로 수도권의 주거공간으로 전이되고- 경기도 중간부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산업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이 현상은 경기도 고용의 중심축이 서서히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향후 우리나라 고용의 무게 중심이 경기도를 이탈한 지역에서 형성될 것을 암시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제조업 종사자 분포의 변화추이

종사자수 분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큰 흐름은 사업체수 성장추세와 유사하나 부분적으로, 특히 접경지역에서는 다른 현상을 보여준다(그림 4). 1990년대 이후 경기도의 전반적 추세는 미미한 고용증가를 나타내지만 다수의 경기도 시·군에서는 고용축소현상이 일어났다. 경기남부 외곽지역과 북부 접경지역 일부는 예외적으로 사업체 종사자수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데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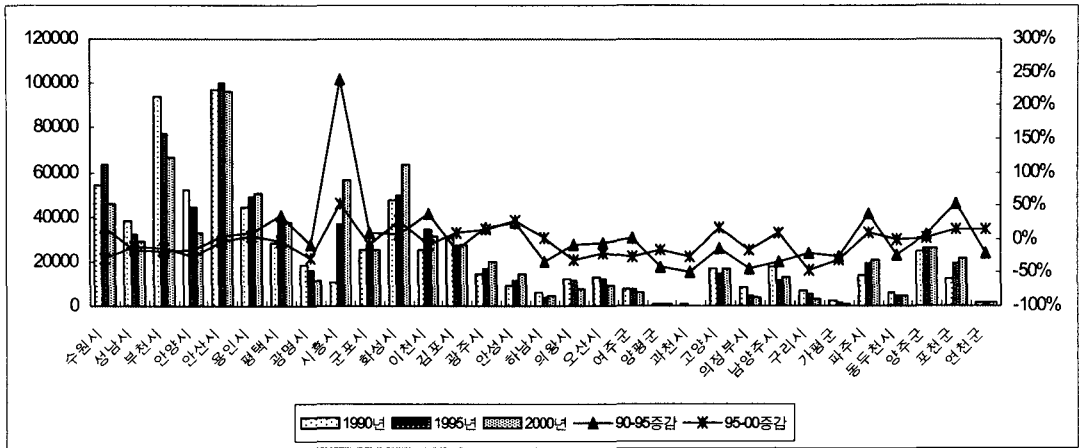


그림 4. 경기도 전산업체 종사자수의 변화추이(1990-2000)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2; 1997; 2002

시흥시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다.⁵⁾ 안성시와 파주시, 포천군에서도 동일하게 높은 비율의 성장세를 나타나 이 세 지역 공히 5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경기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던 지역의 고용비중이 뚜렷이 신장되고 있다. 반대로 서울 인접시부의 경우 대폭적인 고용축소현상이 관찰되며 특히 전통적으로 고용의 강세를 보이던 부천시와 안양시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주목할 것은 접경지역에 속하는 일부지역에서 사업체는 증가하나 종사자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연천군과 김포시가 대표적인 지역으로 특히 김포시는 사업체수는 43%의 순증가추세를 보이나 종사자수는 -9%의 순감소를 나타낸다. 그 외의 접경지역에서도 사업체수의 증가비율에 비해 종사자수의 증가비중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 전지역에서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가 축소하는 방향으로 산업재편이 진행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접경지역에 다수의 산업체가 입지하더라도 고용증대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제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본 경기도 산업구조의 변화추이

제조업 중분류에 따른 경기도 산업구조의 변화추이를 보면⁶⁾(그림 5) 1990년에는 SIC 38에 해당하는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분야가 가장 중요한 제조업 분야이고 다음으로 섬유, 의복, 가죽분야(SIC 32)와 화학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SIC 34)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즉, 1990년의 경기도 제조업구조가 조립형 산업의 절대적인 우세와 화학제품 생산분야 및 섬유·의복군의 강세로 대표되는 산업구조로, 자본집약형 및 조립형 중화학공업이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경공업산업과 혼재되어 경기도 산업의 핵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간 불균형이 심각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000년의 특징을 한마디 요약하면 1990년대에 형성된 상위 세 분야의 우세적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립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전체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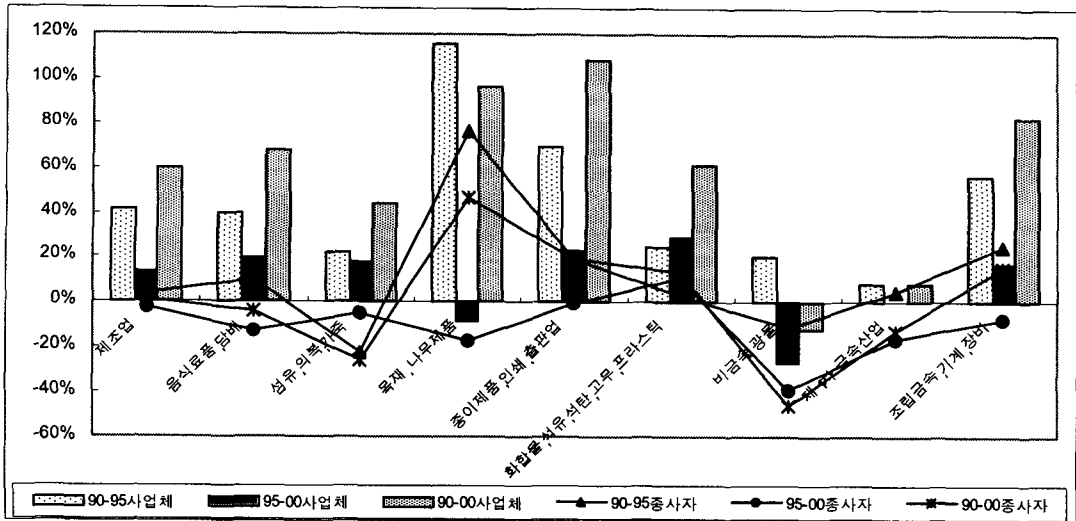


그림 5. 경기도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변화 추이(중분류 기준)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 1992, 1997, 2002

제조업의 50%를 초과하며 1990년과 2000년 동안의 증가율도 경기도 제조업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한다. 그러나 SIC 35군(화학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과 SIC 33군(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조업)의 약진으로 경기도의 중요한 제조업분야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과는 반대로 SIC 32군(섬유, 의복, 가죽분야)의 순위는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있다.

1990년과 2000년 기간 중의 경기도 제조업 증가율은 사업체수 증가(59%)가 종사자수의 증가(1.5%)를 압도하고 있으며 산업분야별로는 종이 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과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조업 (SIC 34와 33)의 사업체 증가가 가히 폭발적으로 일어나 각각 109%와 97%의 신장세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분야의 성장세도 매우 높게 나타나며(83%) 비금속 광물분야를 제외한 모든 제조업군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그러나 종사자수의 증가율은 이러한 사업체 증

가율과는 다른 현상을 나타내는데 SIC 33, 34, 35, 38을 제외하고는 사업체수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수는 감소하였고 종사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산업분야의 경우도 사업체수의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간에 큰 격차를 보인다. 특히 섬유, 의복, 가죽산업에서 사업체수의 증가와 종사자수 증가율의 격차가 매우 심한데 사업체는 44%의 증가율을 나타내지만 종사자는 반대로 26%의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이는 경기도에서 노동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생산양식이 쇠퇴하고 새로운 유형의 생산양식으로의 구조전환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향후 제조업에서 생산요소의 투입방식이 자본과 기술위주로 전환된다면 자본과 기술수준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제조업, 예를 들어 접경지역의 제조업은 더욱 경쟁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낙후성이 고착될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요소의 투입 방식 전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축적의 메카니즘이 접경지역을 더욱 낙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접경지역 제조업의 특성

1990년대 이후 진행되는 수도권 산업조직의 변화과정에서 경기도 접경공간기능도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주변지역으로 남아 있는 접경지역에게 이러한 산업의 구조재편은 성장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더욱 종속성이 강화된 낙후지역으로 침잠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한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산업구조재편의 방향이 접경지역 성장에 유리한 방향이냐는 것이다. 첨단산업은 서울과 경기 서남부를 중심으로 집중되며 접경지역에는 비첨단산업 업종이나 재래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산업구조재편이 진행될수록 이 추세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기술 및 경영 방식에서 낙후한 상황에서 이런 재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재편은 접경지역 지역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재래업종은 전통산업의 전반적 사양화 추세에 따른 구조적 불황의 소지가 크고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 접경지역의 성장기반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1) 영세규모 위주의 제조업 생산구조

경기도 접경지역 제조업구조는 종사자수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중에서 10인 이하 영세기업체가 90%로, 영세 규모의 제조업체 위주의 생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규모 이상 대기업의 입지는 매우 희박하여 접경지역 경제가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천군과 동두천시는 여타 접경지역보다 영세 기업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나 매우 심각한 불균형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위주의 제조업 구성은 접경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의 전반적 현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지역이 공업배치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영향으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²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이 16인 이상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많은 제약을 받는 정치·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치적 규제와 더불어 접경지역은 군사적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업 스스로가 큰 규모의 자본 투자를 꺼리는 지역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수도권 핵심지역의 배출요인에 의해 이전되어 온 자본의 규모가 영세한 기업들의 기업활동 영역으로 정착되고 있다.

한편, 대기업의 입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입지는 전체 접경지역 입지 제조업 사업체수 54,459개 중 0.04%를 차지하는 17개 기업에 불과하다. 이들 대기업은 주로 서울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파주, 김포지역에 10개의 대기업이 입지하여 접경지역 입지 대기업의 59%가 이 두 지역에 분포한다. 이는 대기업들의 서울 인접한 시·군과 접경지역의 서쪽지역 입지 선호경향을 보이는데 주목할 사항은 파주시에 6개의 대기업이 입지한다는 사실이다. 파주시는 여타 경기도 접경지역에 비해 광범위한 범위에서 정치적, 법률적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표 1에서 보듯이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639.09km²로 전체 행정구역의 93.7%가 군사적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비중은 99.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연천군을 제외한 다른 경기도 접경 시·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입지상의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표 1. 경기도 접경지역의 제조업 분포

	제조업 사업체수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행정구역내 군사시설보호구역비율
김 포 시	12,224	4	76.1 %
파 주 시	12,246	6	93.7 %
포 천 군	11,467	3	35.6 %
양 주 군	9,705	3	44.1 %
동두천시	5,455	1	43.5 %
연 천 군	9,962	1	99.7 %
접경지역	54,459	17	—

자료 : 경기도 통계연보, 2002; 통일부, 2002

이 지역을 기업활동 장소로 선택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서울-파주축이 현재 또 하나의 중요한 수도권 제조업축으로 부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다. 김포시의 경우도 행정구역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중이 매우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와 함께 기업체가 접경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고 대기업의 수가 4개로 파주시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다(표 1).

이처럼 접경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체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김포시와 파주시를 기업활동 장소로 선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정치·경제적 규제로 기업활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입지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울 경제권과의 관계적 위치이며 그 외의 군사·정치적 규제조건은 2차적 고려 요인이 되는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취약한 제조업 구조

입지계수는 지역의 산업전문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통용되므로 경기도 접경 각 지역의 특정산업 집중도 및 지역 전문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지계수(LQ)⁷⁾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중분류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입지계수는

일반적으로 전국을 기준단위로 하여 많이 측정되나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내에서의 접경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특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기준 단위로 삼아 제조업체수를 활용하여 입지계수를 산출하였다.⁸⁾

경기도 접경지역의 제조업구조를 살펴보면(표 2) 전체적으로 음식료품, 섬유/봉제분야, 가죽제품, 비금속 및 1차 금속제품, 가구 및 나무제품 등의 노동집약적인 제품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경공업에 속하는 SIC 15-22군은 담배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특화도가 1 이상을 나타내어 접경지역이 경공업분야에의 특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일부업종들은 특화도 3이상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특정지역에 편중 분포하여 전문적 생산공간을 형성한다. 동두천지역은 SIC 19업종에 관하여 뚜렷한 특화도(15.7)를 기록하여 가죽, 가방 및 신발 등 피혁제품 제조에 매우 높은 전문화경향을 나타내고 연천군은 섬유산업과 피혁산업 및 음식료품 업종에서의 특화도가 높는데 특히 섬유분야는 특화도가 6을 기록할 정도로 섬유제조업체가 집중 입지하고 있다. 연천군보다는 특화도 수치가 낮지만 양주군(4.2)과 포천군(3.1)의 경우도 섬유분야에서 매우 높은 특화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목재 및 가구 산

표 2. 경기도 접경지역 제조업의 특화업종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군	포천군	김포시
음식료(2.4)	음식료(2.5)	음식료(4.6)	음식료	음식료(2.2)	목재/나무(3.2)
목재/나무	섬유(2.9)	섬유(6)	섬유(4.2)	섬유(3.1)	펄프/종이(2)
펄프/종이	봉제의료/모피	가죽/가방/신발	가죽/가방/신발	가죽/가방/신발	고무/프라스틱
출판/인쇄	(2.1)	(4.4)	(2.6)	목재/나무	비금속
화학물/화학제품	가죽/가방/신발	비금속(2.3)	코코스/석유제품/	고무/프라스틱	1차금속(2.1)
고무/프라스틱	(15.7)	1차금속	핵연료(2)	비금속(2)	조립금속
비금속	1차금속		비금속	가구(2)	기타 기계/장비
1차금속				재생용가공원료	기타정비기계/
가구				(2.4)	전기변환장치
재생용가공원료					의료/정밀/
					광학기기/시계
					기타운송장비
					가구(2.2)
					재생용가공원료

주 : 경공업업종(SIC 15-22), 중공업업종(SIC 23-29, 34-36), 첨단산업업종(SIC 30-33)

자료 : 경기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2001

업의 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화도가 2이상인 업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조업별 지역분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음식료품 제조업은 연천을 기점으로 포천, 동두천, 파주지역까지 경기도 북쪽 외곽지역이 생산공간으로 형성되고, 섬유공업은 통일로 동쪽 시·군인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지역에서, 피혁산업은 국도 3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 양주, 연천 지역에서 생산공간이 형성된다. 목재, 나무제품 및 펄프 종이제품, 가구제품은 김포시가 대표적인 생산공간으로 부각되지만 파주 및 포천도 이 분야 제조업체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한편, 중공업 부문에 있어서도 금속과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제품군에서 고른 특화를 보이고 재생용품의 특화도 관찰된다. 비금속 광물은 경기도 최외곽인 포천과 연천을 중심으로, 1차 금속은 김포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집중이 높게 나

타난다. 그러나 첨단산업에 속하는 산업군(SIC 30-33)의 경우는 기타 정비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분야(SIC 31)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분야(SIC 33분야)에서 김포시만 약간의 특화도를 보이고 타 접경지역은 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접경지역의 첨단산업 진출이 빈약한 것으로 조사된다.

접경지역 제조업의 전체적 특징은 제조업 전 분야에서 걸쳐 고르게 발달되지 못하고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과도한 특화도를 보여주는 반면 그 외 분야에서는 제조업 진출이 매우 저조하여 산업간 불균형 발전경향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동두천, 포천, 양주, 연천 지역의 산업분야간 불균형적 분포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다. 한편 파주지역은 업종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 경향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접경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징을 종합하면 주로 경공업분야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업종과 비도시형 제조분야의 발달로 오염방지 시설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특화된 생산공간이 되고 있어 취약한 공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가죽과 염색분야인데 동두천과 연천군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지만 영세 기업 중심의 생산구조인 까닭에 환경 규제요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여 무허가 형태의 제조 행위가 많아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경기도 접경지역 기업체의 특성 및 입지요인 분석

접경지역 소재 기업들의 입지 요인과 기업체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과 2003년 2월까지 행해진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설문지 발송은 5개 지역(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 김포시)에 소재한 개별입지 기업(설문지 A형)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설문지 B형)을 대상으로 모집단의 각 지역별 기업 비중에 따라 발송하였다. 기업규모와 업종분류에 의해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집단의 비중을 고려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2003년 4월 말까지 개별기업 179개 업체와 산업단지입지 기업 35개사에서 설문을 회수, 총 214개 기업에 대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① 이주 동기에 따른 구분을 실시하는데 특히 수도권 산업정책에 영향을 받은 기업입지를 유의하여 고찰하고 ② 접경지역이 지니고 있는 기업입지의 흡인요인과 배출요인을 분석한다. 이때, 기업들은 최초 입지를 선정할 때 어떠한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경기도 접경지역이 그러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

는 입지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분석하였다.

1) 경기도 접경지역 기업체의 입지과정

(1) 기업 설립 시기와 특성

표 3은 경기도 접경지역에서의 산업화 역사가 짧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7개 설문응답 기업⁹⁾ 중 175개가 1990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으로 약 90%가 10년 안팎의 역사를 가졌다. 1970년대까지는 기업의 설립이 매우 적다가 199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1990대 전반보다 후반이후 집중적으로 접경지역에서 기업체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설립한 기업 중 81.7%에 해당하는 143개 기업이 신규 창업이 아닌 이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전체 설립 기업 214개 중 67%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경기도 접경지역은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경제주체가 선호하는 입지라기보다 한번 이상 이전한 기업들의 입지선호 지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접경지역 각 시·군별로 기업체 설립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4), 대부분의 시·군부에서 창업보다 이전기업이 많으며, 특히 파주와 김포의 경우는 창업기업에 비해 이전기업이 월등히 많아 서울권과 가까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기업들의 입지 이전 지역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표 3. 기업체 설립시기 분포

기 간	응답 기업	비 중
1980년 이전	2	1.0 %
1980년대	20	10.2 %
1991-1995	42	21.3 %
1995-2000	91	46.2 %
2000년 이후	42	21.3 %
계	197	100 %

표 4. 시·군별 이전 및 창업 기업 분포

	이 전		창 업		합 계
	개 수	비율	개 수	비율	
동두천	5	3%	3	5 %	8
연 천	4	3%	5	8.3%	9
파 주	54	35%	11	18.3%	65
포 천	34	22%	25	41.7%	59
김 포	57	37%	16	26.7%	73
합 계	154	100%	60	100 %	214

있다. 한편, 서울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는 포천, 동두천, 연천 지역은 이전기업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고 창업과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는 정도이다.¹⁰⁾

접경지역내 창업 기업의 설립시기를 분석하면 (표 5) 90년대 이전에는 거의 없고 1995년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창업지역으로 선호되는 곳은, 이전기업과는 달리, 포천과 김포로 나타나고 차선

표 5. 창업업체의 지역별 현소재지 입지년도

	91-95년	96-00년	01년 이후	무응답	합 계
동두천	1	1	1		3
연 천	1	2	1	1	5
파 주		2	6	3	11
포 천	3	9	6	7	25
김 포	2	2	10	2	26
합 계	7	16	24	13	60

표 6. 이전업체의 지역별 현소재지 입지년도

	80년 이전	81-90년	91-95년	96-00년	01년 이후	무응답	합계
동두천		1	2		2		5
연 천			2	2			4
파 주		5	9	31	4	5	54
포 천	1	5	5	13	9	1	34
김 포	1	3	10	26	16	1	57
합 계	2	14	28	72	31	7	154

책이 파주지역이다. 창업 시기별·지역별로 분석하면 포천시는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김포시는 2000년이 넘어서면서 활발하게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주에서도 90년대 이후 기업이 서서히 창업되고 있지만 그 수효가 많지는 않고, 연천은 이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창업기업에게서도 외면당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2) 기업이전에 대한 분석

① 이주시기

이전 기업의 접경지역 입지 연도를 살펴보면 (표 6) 1990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제조업 증가추세가 199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과 맥을 같이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접경지역에서 동일한 시기에 기업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의 관계 및 지역이 가진 입지적 조건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나타낸다. 이전 기업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김포로, 90년대 이후 매 5년마다 2-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간지대라는 지리적 입지와 김포축을 따라 서울 경제권이 확장된 영향에 기인한다. 김포가 90년대 초부터 차츰 이주기업이 입지하기 시작했다면 파주는 응답업체 중 70%의 기업이 1995년 이후 이주해왔다. 포천도 1995년

이후에 기업체의 이주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2000년 이후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도권 제조업 기업체들의 공장이전 공간 범위가 접경지역 중에는 김포지역으로만 한정되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전의 공간적 범위가 넓혀져 파주와 포천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연천과 동두천은 90년대 중반이후 진행된 접경지역으로의 수도권 공업확산과는 무관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② 이주기업의 과거 입지

이주 기업의 과거입지를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표 7) 서울이 월등하게 많고 다음이 동일 시·군내에서의 이주와 인천과 경기남부지역, 그 다음으로 경기북부지역과 접경지역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이는 서울과 인천의 경제권 확대가 경기도 접경지역으로 진행된 공간적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 기업의 과거 입지가 서울지역, 특히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입지했던 기업이 18개로 가장 많고, 인천이 15개 기업, 부천 5개 기업으로 조사되어, 전통적 경인 공업지구에 입지해 있다가 경기도 접경지역으로 이주해 온 기업이 접경지역 이주기업의 1/4 가량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고양지역에 있던 기업이 접경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주해 온 것(14개 업체)으

로 조사돼 서울, 인천-부천, 고양지역이 접경지역의 최고 제조업체 공급 지역으로 나타난다.

과거 기업입지 지역별로 기업이전을 위한 지역 선정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에 있던 기업의 이전 선호지역은 파주와 김포이고 포천지역도 어느 정도 서울기업의 이전이 이루어진 곳이 되고 있다. 반면 인천과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하던 기업들은 김포지역을 기업 이전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리적 접근성이 작용한 영향이며 김포가 서울권과 인천 경제권 및 인천 교통·물류권을 연결하는 중간위치에 있다는 관계적 위치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북부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경우는 접경지역 중 주로 파주지역을 기업 이전지역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는 경기남부지역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접근성의 영향이 가장 많이 작용한 것이며 또한 남북관계의 호전으로 파주가 서울과 북한경제권을 잇는 중간지역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부상하여 국경의 분리 기능의 완화라는 관계적 위치의 개선이 기업을 유인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내부적 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나 동일 시·군내에서의 이전이 다수를 이루고 접경지역간의 이전은 큰 흐름을 형성

표 7. 이전기업의 과거 위치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비접경)	접경지역	동일시·군	합 계
동두천	1			3	1	5
연 천		1	1	3	2	4
파 주	23	9	11	1	8	52
포 천	10	5	3	2	11	31
김 포	21	15	2	2	15	55
합 계	55	30	17	8	37	147
	37.4%	20.4%	11.6%	5.4%	25.2%	100%

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와 포천, 파주지역이 동일 시·군내 기업의 이주가 많은 지역이다. 이들 세 지역들은 90년대 이후 빠르게 제조업의 증가가 나타난 지역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기업들도 급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형태로 동일 시·군내에서 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기업들의 이전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환경이 기업이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이전 결정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정책적 규제요인이다. 이들 다수가 창업 초기 서울의 구로구나 영등포구에서 가공업을 하던 소규모 기업들이었으나 비도시형 산업으로 분류됨으로서 서울 외부로 이전한 경우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집적지역으로 이주하였으나 그만한 경쟁력을 갖추기 못한 기업들은 초기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업활동을 하다가 서울의 개발압력이 거세진 1990년대 후반에 보다 저렴한 입지조건을 찾아 경기북부 외곽으로까지 밀려난 것이다. 현지조사 중 김포지역에 입지한 이전기업들은 부천지역에 입지한 금형관련기업에 대한 열등한 위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기업상황을 피력하였다. 영등포나 구로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중소기업 중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부천지역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경제핵을 형성한 것에 반해 김포 외곽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상품경쟁력과 자금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지역으로 입지를 옮기게 되었다. 시장으로부터 원거리로 이주한 경우 수송비의 증대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기업의 지역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 조사과정에서 만났던 기업인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기업입지가 접경지역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서울의 주변지역, 수도권 경제권의 외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들의 경쟁력 부족 특히 자금력 부족으로 불리한 입지인 낙후지역을 기업활동 공간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자긍심이나 애착심이 결여되게 하고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환경보호정책과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개발정책이다. 정부는 비도시형 기업들이 경기도 외곽지역에 무질서하게 분산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자리잡음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 업종위주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련업체들을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형태가 동두천의 피혁 및 염색업체를 위한 산업단지이다. 또한 남북경협외 교두보 개발을 위한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은 문발지역의 산업단지 2곳과 파주시에 조성중인 산업단지 등을 들 수 있다.¹¹⁾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결과, 동두천에서는 동일시군내에서의 국지적 이동이 촉발되었고 파주시에서는 수도권 각 지역에서 이주해 들어오는, 좀더 광범위한 지역단위에서 일어나는 기업이동이 유발되었다.

2) 기업입지 결정요인 및 입지만족도 분석

기업의 입지결정인자는 현재의 입지를 경기접경지역으로 선택한 이유와 현 입지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① 기업 입지 결정요인 분석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중요한 흡인요인으로는(표 8) 공장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지가·임대료 등 토지관련 조건을 꼽을

표 8. 기업의 입지 결정 요인

이 유	비중(%)
1. 공장 부지 확장	31.5
2.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17.6
9. 공해/소음 등의 민원에 의해	10.7
8. 공장 등록이 불가능해서	9.8
11. 교통/물류시설의 편리성	6.6
10. 행정기관의 이전 명령	5.5
14. 기타	4
5. 단순노동력 확보	3.2
7. 고객 (업체)와의 근접성	3.2
4. 숙련/ 기술노동력 확보	2.9
3. 근로자의 임금이 비싸서	2
12. 정부/지자체의 기업유치와 지원	1.4
13.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	1.2
6. 공급업체와의 근접성	0.9
계	100

수 있다. 반면 과거 이전지역의 배출요인으로는 공해·소음 등의 민원에 의해, 행정기관의 이전 명령, 공장등록불가능 등의 요인으로 주로 환경 규제 정책과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이 있다. 공장 부지확장이라는 항목은 접경지역의 흡인요인인 동시에 과거 입지지역의 배출요인이다. 이는 수도권 총량제의 영향으로 과거 입지지역에서는 더 넓은 기업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고 상대적으로 기업밀도가 낮은 접경지역은 기업활동 공간의 여유가 있었던 덕분이다. 유의할 사항은 이 지역이 수도권의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임금 수준에 의한 흡인요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가 서울권에 통합되어 노동임금 수준이 거의 동일한 반면 근로환경은 열악하여 노동력의 공급조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문 토대로 분석해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유치 정책이나 지원이 접경지역 기업들의 입지 선정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책적 요인이 핵심지역 배출요인으로는 작용하나 접경지역의 흡인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성향의 이유를 반영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설문이 복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의 접근성, 교통·물류시설의 편리성,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와 같은 긍정적인 입지요인은 입지 선정과정에서 크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북한으로 기업의 활동공간을 확장시킬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도(표 9) 59%의 기업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그 중 김포지역은 30%의 기업만이 북한 진출의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었고, 파주 지역의 경우 49.2%의 기업이 북한 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파주지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경우에서도 입지지역 선정에 남북경협에 대한 영향이 미약하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는 세간에서 접경지역의 발전 잠재성을 남북 경제 협력에서 찾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로서 정책입자가 아닌 민간부문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아직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인차 역할을

표 9. 접경지역 기업의 북한진출의사 여부

	긍정적 응답	부정적 응답
동두천시	3	4
포 천 군	4	5
파 주 시	31	32
연 천 군	24	32
김 포 시	19	43
계	81(41%)	116(59%)

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② 입지만족도 분석

경기도 접경지역 기업이 14개의 입지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1부터 5까지의 점수로 평가한 결과는(표 10) 평균 2.4로 보통 또는 보통 이하의 불만족스러운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을 의미하는 3이 많았지만 불만을 나타내는 1과 2의 점수 빈도가 만족을 나타내는 4와 5의 빈도보다 높아 기업들이 입지환경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불만인 조건들을 살펴보면,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정부의 지원, 교통·물류시설, 생산자 서비스업체와의 근접성, 행정 서비스 기관과의 근접성, 기술자원 및 기술정보 획득, 주변환경의 쾌적성 및 근린시설의 편리성 등이며 중심지역으로부터의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부족과 고차서비스의 미비가 가장 심각한 불만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매우 불만’을 표시하는 1이 최다인 항목은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단순노동력 시장의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울과의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매우 불만조건은 정부지원 측면과 교통·물류시설 측면이다. 교통과 물류를 도로사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정부의 지역개발의 부족을 반영하는 사항이다. 1990년대 이후 기업의 입지는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부족과 교통체계의 미정비가 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내 기업증가가 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을 개선시키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입지환경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대체로 불만’ 사항으로 평가한 기업환경은 첫

표 10. 경기도 접경지역 소재 기업들의 입지요인 만족도

	개별입지	계획입지
1. 지가·임대료 등의 경제적 여건	2.9	3.3
2. 제품시장과의 접근성	2.8	3.1
3. 원/부자재 확보의 용이성	2.9	3.0
4.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2.2	2.4
5. 관련업체(동종, 원청, 하청업체)와의 근접성	2.9	3.1
6. 입지지역의 입급수준	2.7	2.8
7. 생산자 서비스 업체와의 근접성	2.3	2.6
8. 행정서비스 기관과의 근접성	2.5	2.7
9. 정부의 지원	2.3	2.6
10. 교통, 물류시설	2.4	2.8
11. 용수, 전력시설	2.8	2.6
12. 산업입지관련법의 규제정도	2.5	3.1
13. 기술개발 및 기술정보 획득	2.4	2.7
14. 주변환경의 쾌적성 및 근린시설의 편리성	2.6	3.2
15. 종합만족도	2.4	3.0

주 : 1(매우 불만), 2(불만),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째가 기술개발 및 기술 정보 획득과 생산자 서비스 업체와의 접근성으로 고차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심지와와의 지리적 격리로 인한 불편사항이고, 둘째는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정부 지원, 행정서비스 기관과의 근접성, 교통·물류사항으로 행정력에 의한 제공되는 지역 인프라, 교통 인프라와 노동조건이다. 셋째가 주변환경의 쾌적성 및 근린시설의 편리성으로 어메니티(amenity)에 대한 요구 불충족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이 비도시형 산업의 불법적 난립으로 인해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었음을 반영하는 지적이라 하겠다.

한편, 만족한 조건으로 평가한 항목은 지가 및 임대료 조건, 제품시장과의 접근성, 원/부자재 확보의 용이성, 용수, 전력시설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중심시장과의 접근성에서 오는 이점과 낮은 지가 조건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용수의 문제는 일부지역에서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분한 용수가 필요한 생산공정이지만 공업용수가 제공되지 않아 비싼 상수도 요금을 지불하거나 자체적 시설을 마련하여 지하수로 공업용수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하수 사용은 갈수기에 제조활동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오랫동안 활용된 까닭에 지하수의 근원이 고갈되고 있어 장기적인 용수 공급원이 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경기도 접경지역 중 가장 많은 이전 기업을 유치한 김포, 파주, 포천의 입지 흡인 요인을 살펴보면 지가조건과 시장과의 접근성 요인(1, 2번 요인)이 기업들의 입지를 유인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관계(8, 9번 요인)와 산업관련 인프라 요인에서도 편리성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저렴한 지가가 기업의 이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김포와 파주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이 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두천이나 연천의 경우 정부지원이 기업들의 입지결정요인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을 비교해 보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인 만족도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입지 만족도가 3.0으로 개별기업의 2.4보다 높게 나타나 산업단지의 기업환경이 양호하다고 느끼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는 특이하게 지가 조건 다음으로 주변환경의 쾌적성과 산업입지규제법의 규제정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가 비교적 산업입지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각종 산업입지규제가 심한 경기북부의 경우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를 활성화 시킨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용수와 전력의 조건에 있어서 산업단지 입지기업의 불만족 정도가 개별기업보다 높다는 것이다. 개별입지의 경우는 생산용수로서 지하수를 주로 활용하여 용수의 가격이 저렴한데 비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지하수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아 용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공업용수가 아닌 일반용수 가격으로 용수를 사용하므로 산업단지 입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특히 생산공정에 많은 물이 필요한 동두천의 피혁·염색업체들이 이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접

경지역내 경제 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 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는 공간이 되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파도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노정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되는 경기도 접경지역의 산업구조 변화가 반드시 경기도 접경지역의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현상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제조업의 성장이 과밀억제 권역이나 서울에서 밀려온 영세기업이나 비도시형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체수의 증가만큼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의 증가를 수반하지 못하여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적다. 둘째, 이전 산업체가 주로 임가공 중심형 기업형태를 취하고 있고 모기업 입지지역인 수도권 중심권과의 종속적 관계가 더욱 심화된다. 셋째, 이전기업의 다수가 환경오염 유발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며 무허가 기업의 분포가 많은 까닭에 접경지역에서의 사업체의 증가가 지역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부의 환경오염만을 전이받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의 낙후성으로 인한 산업기반시설의 낙후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는 첨단산업과 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을 제한하여 서울권 및 경기남부 지역과의 성장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다섯째, 수도권 중심권의 구조개편의 영향으로 서울권 및 경기남부 지역은 고부가가치 생산공간으로, 접경지역은 저부가가치 생산공간으로 노동분화가 촉진되었는데

이러한 경제공간 구조의 정착은 접경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이 개선되기 더욱 힘든 생산체제가 정립됨을 의미한다. 여섯째, 접경지역의 경제구조가 비첨단산업 위주, 재래업종의 생산공간으로 고착되고 있는데 이는 전통산업의 전반적인 사양화 추세에 따른 구조적 불황의 소지를 안게 되는 것이고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의 급격한 저하로 지역경제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규모의 영세성, 기술 및 경영방식의 낙후 상황에서 재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장기적으로 접경지역 성장기반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특성과 기업환경으로서의 접경지역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접경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1990년 이후에 설립된 역사가 짧은 기업이 약 90%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운 창업기업보다는 이전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전 전의 입지 지역은 서울, 동일 시·군, 인천·경기남부지역 순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기업들은 김포와 파주를, 인천 및 경기남부 기업들은 김포를, 경기북부지역 기업들은 파주를 가장 선호하는 이전지역으로 꼽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기업의 이전지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파주와 김포에서는 창업기업보다 이전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이 지역이 산업환경에 대응하는 사업체들의 서울권 근교 재입지 지역으로 발전함을 알 수 있다. 이전기업의 접경지역 입지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0년 이후에는 이전입지 뿐 아니라 창업에 의한 기업입지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증가의 지리적 확산은 1990년대 김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95년 김포와 파주지역으로 확산되고 2000년대에는 포천지역에서의 기업이전이 촉진되고 있다. 한편 연천군의 경우는 접경지역으로의 수도권 산업공간 확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곳으로 조사된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입지 행태를 평가해보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기업의 적응 행태로 타 수도권지역의 불리한 입지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으로 기업 활동 공간을 삼은 것이라 하겠다. 즉, 수도권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비도시형 산업의 규제강화와 총량규제로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들이 경기도의 외곽으로 차츰 밀려나는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 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이 현상은 수도권내 과도한 집중에 기인한 기업활동부지의 부족으로 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까지 기업활동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한계지역의 개발로 인한 기업공간의 확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전 기업들을 보면 대다수 기업이 영세한 기업이어서 중심지역의 성장과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발달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주

- 1) 접경지역은 서울권에서의 과도한 인구성장과 산업의 집중으로 수도권내에서 활용가능한 토지부족과 과밀로 인한 불경제라는 문제와 수도권 북부와 남부간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여 경기북부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남아 있는 한계자원으로 인식, 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서울권의 팽창으로 인한 개발압력의 북상과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남북경제협력의 남진 현상이 동시에 작용하는 까닭이라 하겠다.
- 2) 여러 연구들을 통해 국경의 분리기능은 사회·정치적 분리뿐 아니라 경제적 분리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시장의 왜곡, 중심지 체계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 3) 특이한 것은 제조업 집중지역 가운데 섬처럼 제조업 허락지역들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의정부시, 오산시 등으로 오산시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에 인접한 침상위성도시들이다.
- 4) 1995년 이후 대부분의 서울 인접지역에서 사업체 감소율이 20%를 초과하고 있다.
- 5) 1990년-2000년 중 415%의 성장을 기록하여 경기도 전산업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5%에서 2000년 7.5%로 크게 성장하여 시흥시는 안산시, 부천시, 화성시에 이어 4번째로 중요한 고용지구로 부상하였다.
- 6) 산업 중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업종구분은 1990년 9개(SIC 31-39)이던 것이 표준 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1994년 이후 23개(SIC 15-37)로 바뀌었으므로 1995년과 2000년 광공업통계자료를 1990년 자료에 맞추어 변형하였다.

90년 산업분류	
3	제조업 (31-39)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포함
3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업 및 출판업
35	화학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6	비금속광물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7	제1차 금속산업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9	기타제조업

95년 산업분류	
D	제조업 (15-37)
15	음식료제조업
16	담배제조업
17	섬유제품제조업
18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3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자료 및 가공처리업

7)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특정 지역 내에서의 특정 산업규모와 전국규모와의 비율을 활용하여 특정지역에서 특정산업의 집적도를 측정하는 지역경제 활동 측정모델이다. 그러나 지역의 입지계수가 높다고 관련산업이 발달하였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8) LQ = (E_{ij}/E_{it})/(E_{nj}/E_{nt})$$

E_{ij} : i 지역내의 j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수

E_{it} : i 지역의 총 제조업체 수

E_{nj} : 경기도 내의 j 업종에 종사하는 총 사업체수

E_{nt} : 경기도 총 제조업체 수

9)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214개 업체이지만 항목에 따라 응답한 기업수는 달라질 수 있다.

10) 연천의 경우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의 차이가 하나로 창업이 많게 나타나지만 이는 설문한 기업의 수가 적은 원인인지 일반적이 경향인지 확인을 할 수 없다.

11) 파주시 행정구역내 통일산업단지협동조합이 조성하는 255,000m² 규모의 산업단지가 있고 파주인쇄협동조합이 조성중인 인쇄관련산업단지가 있다. 이 산업단지는 2003년에는 완공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완전한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기업만이 입주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 2002, 경기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경기도, 2002, 경기도 통계연보.
 권용우 외, 2001, 변화하는 수도권, 보성각.
 김안제, 1983, "우리나라 한계지역의 성격과 변화과정", 도시문제 202, pp.83-101.
 김원배, 2002,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모색, 국토연구원, 2002-12.
 김포시,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2002, 각 시·군 통계연보.
 박삼욱, 2000, 현대경제지리학, 도서출판 아르케.

박영철·김영봉, 1996, “한국의 접경지역 관리방안(상)”,
국토정보 1996-12, pp.70-78.

이승현, 2003,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 및 기
업연계의 공간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이희연, 1992, 경제지리학, 법문사.

통계청, 1992, 1997, 2002,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일부, 2002,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방안.

허재완 외, 1998, 한국지역경제론 - 지방경제의 이해
법문사.

<http://www.femis.go.kr>

교신저자(Correspondence): 이현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국토정책위원회)

Tel: 031-380-0549, Fax: 02-877-7656, E-mail: lhjclaire@empal.com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7, No. 2, 2004 (203-225)

The Evolution of Economic Structure and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s in Border Region of Gyeonggi Province*

Hyeonjoo Lee** · Seunghun Lee***

** *Expert, National Territory Policy Committee*
(lhjclaire@empal.com)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yshun77@hanmail.net)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space in Gyeonggi border region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enveloped the enterprises because today, largely influenced factor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s enterprises. Since 1990's the change of the spacial organization in Korean Capital region has been inducing the functional transformation in Gyeonggi border regions so that new function - beyond military functions- is developed in these regions. By the disindustrialization in core region contributed to the industrialization in periphery, border regions are developed as a concentrated space of traditional industries and small size manufactural firms. The most important pull factor is facility for obtain a factory site and favorable condition of land price. Globally, the reasons to locate enterprise in these regions are found not in positive and progressive strategies but in passive and defensive strategies. Therefore few enterprise carried about influence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moment of decision of their site. The survey reveal that enterprises didn't highly estimate the environment in border regions as their business activities. The first dissatisfied condition is insufficiency of labour and difficulty of access for administrative and high level services, due to geographical separation. Considering the recent tendency of spacial reorganization in Capital region is not always good for border regions, border regions have to employ a policy with the object of ameliorating regional business environments and growing up a potentiality of endogenous development.

Key Words : evolution of economic structure in Korean Capital region, industrialization in border region, regional underdevelopment, localization factor of enterpris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2-072-BS1031)